

한국불교, 아프리카에 희망과 미래를 선물하다

화보

보리가람농업기술대학 문 열던 날

지난 5일 종단의 공익법인 아름다운동행이 설립한 탄자니아 보리가람농업기술대학이 문을 열었다. 조계종이 아프리카 대륙에 세운 첫 학교다. 국민 80% 이상이 농업에 종사하는 탄자니아에서 농업 인재 양성을 위한 대규모 종합시설이 들어선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지만 무엇보다 종단에서는 부처님의 자비를 전하는 데 또 하나의 역사를 쓰는 셈이다. 현지에서 열리는 개교식에 참석하기 위해 조계종 총무원장 자승스님을 비롯해 교구본사 주지, 중앙종회의원, 본·말사 스님과 신도 등 70여 명의 조계종 대표단이 장장 20여 시간을 걸려 다르에스살람 외곽에 위치한 무와송가 마을에 도착했다. 보리가람농업기술대학 학생과 교직원, 마을 주민들이 들뜬 얼굴로 대표단을 맞았고 한바탕 축제 마당이 펼쳐졌다.

탄자니아 다르에스살람=이경민 기자 kylee@ibulgyo.com



아름다운동행은 개교식에 앞서 보리가람농업기술대학 인근에 위치한 무와송가 초등학교를 방문, 책걸상 60여 개를 기증했다. 학생들에게 단주를 채워주는 총무원장 자승스님.



조계종 대표단이 대학에 처음 입학하는 학생 5명에게 입학증서를 수여했다.



500여 명의 주민들이 개교식에 찾아와 큰 관심을 보였다.



무와송가 마을 아이들이 개교식에서 축하 공연을 하고 있다.



모종 심기 시삽하는 총무원장 스님.



보리가람농업기술대학을 둘러보고 있는 스님들.



완공된 교실에서 예비 수업을 하고 있는 교사와 학생들.



학생들이 생활하게 될 남녀 기숙사.



총무원장 스님이 보리가람학교 직원들과 함께 했다.



2016
September
26th - 30th

제28차 WFB 서울총회

The 28th General Conference of the World Fellowship of Buddhists

9월 26일 - 9월 30일

www.28wfb.org

주제: 불교의 생활화, 생활의 불교화
(Buddhism in Daily Life, Daily Life of Buddhists)

제 19차 세계청년불교도우의회(WFBY)

The 19th General Conference of the World Fellowship of Buddhist Youth

제10차 세계불교대학 회의(WBU)

The 10th Meeting of the World Buddhist University



개회식 Opening Ceremony

27일 (화) 오후 4시
AW컨벤션센터

학술포럼 Academic Forum

주제: 현세정화와 밀엄정도
29일 (목) 오전 9시

폐회식 Closing Ceremony

29일 (목) 오전 11시

주최 대한불교진각종, WFB 세계본부

주관 WFB 서울총회 준비위원회

후원

문화체육관광부 / 서울특별시 / 한국불교종단협의회
불교방송 / 위덕대학교 / 밀교신문